

# 심봉사의 안맹과 전환 장애

윤인선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 The blindness of Sim Bongsa and the conversion disorder

In-Sun Yoon

Liberal arts department, Jeonju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한국에서 딸의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심청전』의 주인공을 심청의 아버지인 심봉사로 인식하고, 이 작품을 안맹한 심봉사가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파악하며 그의 안맹의 원인과 성격을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청전』 이본들의 두 주축인 경판본과 완판본을 비교하며 심봉사의 안맹의 원인과 안맹 시점을 살펴보면, 심봉사의 성격은 매우 의존적이며 책임 회피적이어서 가장으로서 매우 부적격적인 인물로 드러난다. 그의 안맹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환경을 책임지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달아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에서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자 하는 심인성 히스테리, 곧 전환 장애로 진단된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 청이 황후라는 사실을 안 순간, 곧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진단을 보장해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 **주제어** : 심청, 심봉사, 안맹, 전환 장애, 심인성 히스테리, 증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indness of Sim Bongsa, Sim Cheong's father, in *Sim Cheong Jeon* (the story of Sim Cheong). Thi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about the filial piety in Korea. This article regards the story as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sight of the father and tries to examine the cause and the timing of his blindness to make its diagnosis in the psychoanalytic perspective. The predominant characteristics of Sim Bongsa were very dependent and irresponsible. He was so unqualified to be a head of a family. He sought to close his eyes toward reality in his unconsciousness. His blindness can be diagnosed as a case of psychogenic hysteria, conversion disorder. The fact that he suddenly could see when the empress turned out to be his own daughter, Cheong, can be a meaningful proof for this diagnosis. It means that his symptom of blindness disappeared when he realized a new reality which ensures a comfortable and easy-going life for himself.

• **Key Words** : Sim Cheong, Sim Bongsa, Blindness, Psychogenic hysteria, Conversion disorder, Sympto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심청전』은 한국에서 아버지에 대한 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봉사라 불리는 맹인 남성 심학규(『심청전』 - 「완판본」), 또는 심현(『심청전』 -

\*Corresponding Author : 윤인선(yoon702@hanmail.net)

Received March 20, 2017

Accepted April 20, 2017

Revised April 10, 2017

Published April 28, 2017

「경판본」)과 출천지 효녀라고 불리는 그의 외동딸 청인데, 대부분 독자들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 청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이 작품에서 그 희생효의 실행 주체가 딸인 청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심청전』이라는 작품이 심청의 이름을 달고 있고, 비록 『심학규전』이나 『심현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에서 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심봉사전』이라고 부른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막중하다. 따라서 장석규가 『심청전』의 서사구조를 연구하면서 이 작품을 “심청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심봉사 이야기”로서 “효를 실천하는 ‘심청의 일대기’이면서 시력을 회복하는 ‘심봉사의 일대기’”[1]라고 말한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청전』에서 청이 자신을 인신공양물로 팔아 죽음으로써 효를 실행하게 된 원인은 가난한 아버지 심봉사가 다시 눈을 뜰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승려에게 듣고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의 시주를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희생효라는 행위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그녀 효행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심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희생적 효행의 주인공인 심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효의 대상인 아버지 심봉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심봉사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승에게 약속한 것은 자신의 시력을 되찾기 위한 것이므로 청의 희생적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심봉사의 안맹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안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바로 이 점에서 제기된다.

## 1-2. 연구방법과 목적

『심청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이본 및 계통에 대한 연구, 근원설화를 밝히는 연구, 주제 연구, 구조분석 연구, 신화 비평적 연구, 여성 주의적 연구 등 다양한 해석에 더하여 정신분석적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정신분석적 연구는 청의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천하의 효녀 심청의 내면세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그녀의 희생효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찰을 함으로써 그녀를 단순히 효녀로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녀가 왜 자신을 인제수로 팔아야 했는지 그 선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 사상에 의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진정한’ 심청의 이야기를 드

러내 주었다[2].

본 논문은 이제 심봉사를 작품의 중심에 놓고, 정신분석적 관점에 따라, 심청의 이야기 뒤에 감추어진 채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과 정신분석학의 융합 영역에서 심봉사의 성격적 특성과 함께 그의 안맹의 비밀을 밝혀줄 것이다. 심봉사는 맹인으로서 그동안 청의 희생효적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무고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심청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심청의 죽음까지도-에 대해 작품 속 주변 등장인물들과 이 작품의 독자들에게까지 비난보다는 동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장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심봉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의 출발점을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에 두려고 한다. 심청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심청전』의 모든 판본들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그의 맹인 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본 논문은 타고난 맹인이 아니었던 심봉사의 안맹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심청전』에 나타난 그의 안맹에 대한 묘사를 분석하여 그의 안맹의 특성과 함께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심봉사의 안맹과정

『심청전』의 모든 판본은 공통적으로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때마다 필수적으로 그의 안맹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이 작품이 심청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만년까지 그녀 삶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지만, 모든 판본에서 항상 심봉사에 대한 묘사를 그의 안맹과 연계하여 시작하고 있는 서두는 심봉사의 안맹이 이 작품의 존재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잘 보여주는 장치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맹인이었던 심봉사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결말부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작품을, 후천적인 장님이 심봉사가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심봉사전’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심청전』의 다양한 이본들 속에서 대표적인 판소리게 이본으로 꼽히는

「완판 71장본」 ‘다가서포본’(이하 「완판본」)[3]과 문장체 소설로 ‘한남서림본’인 「경판 24장본」(이하 「경판본」)[4]을 주요 자료로 사용하여, 작품의 서두와 마지막에서 이 작품이 심봉사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문학작품에서 서두는 대체적으로 작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암시해주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서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완판본」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송나라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심이고 이름은 학규였다.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으로 이름이 났었으나, 집안 형편이 기울어져 스무 살이 못 되어 앞을 못 보게 되니, 벼슬길이 끊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 희망이 사라졌다.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처지이고 보니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눈까지 어두워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양반의 후예로 행실이 청렴하고 지조가 곧아서 사람들이 모두 군자라고 칭했다[5].

위의 인용에서 보면, 심봉사는 양반출신으로 스무 살 경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대대로 벼슬을 하는 명문가인데, “집안 형편이 기울어져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앞을 못 보게 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위의 문장으로 보아 ‘집안 형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것인지, ‘집안 형편이 기울어짐과 동시에’ 앞을 못 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안맹이 집안형편이 기울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서 그의 안맹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던 것일까? 왜 그는 집안의 가세 하향과 더불어 맹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안맹 전에는 왜 그의 가세가 기울어졌을까?

작품 속에서 심학규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심청전』의 모든 판본에서 그의 부모나 형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감안하면, 그가 자손이 귀한 집의 외아들이었을 것임이 짐작된다. 작품에서는 그의 집안형편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다. 드러난 사실은 단지 그가 집안의 기울어짐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나아가 시력까지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뿐이다.

그의 안맹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안맹으로 인해 그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게 되고 집안 형편은 더욱 기울어진다. 곧 그의 안맹과 가세의 하락은 함께 진행되어, 그의 안맹은 향후 그의 가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장적 사회에서 집안형편이 기울어짐은 가장인 남성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며,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한 책임도 가장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가장인 심봉사는 안맹으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그는 하는 일도 없이 문자 그대로 무위도식한 삶을 영위하지만 장님이라는 이유로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다. 곧 그의 안맹은 철저한 거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그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야 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그에게 자연스럽게 면제해주고 있다. 안맹으로 인해 그의 무위도식한 삶은 아내에 이어 어린 딸 청의 섬김을 받아도 비난받지 않을 명분을 얻고 있다. 곧 그의 안맹은 그에게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양반가의 가업으로 벼슬길에 나가 일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까지도 완벽하게 면제해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청전』의 「경판본」 서두는 「완판본」과 비교하여 심봉사가 맹인이 되는 과정과 시기 등이 많이 다르게 묘사된다. 청의 아버지 심현은 아내 정씨가 죽기 전까지는 맹인도 아니었고 이름난 선비로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결혼한 지 십년 만에 딸을 낳았다.

명나라 성화 연간에 남군 땅에 한 명사가 있었는데 그의 성은 심이요, 이름은 현이었다. 본래 명문거족이었으나 그에게 이르러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아니하여 당대의 이름난 선비가 되었고, 부인 정씨는 높은 가문의 딸로서 타고난 자질이 넉넉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혼인한 지 10여 년 동안에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부부가 늘 서로 마주보면서 슬퍼했다. 그러다가 부인이 신비한 태몽을 꾸고 나서,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 만에 딸을 낳았다[6].

「완판본」에서 그가 ‘안맹으로 인해’ 벼슬길에 나가

지 못한 것과 달리, 「경관본」에서 그는 ‘본래 명문거족이었으나 그에게 이르러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아니하여’ 선비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 바, 그가 맹인이 아님에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아 선비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안맹의 특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 왕정시대에 양반들은 대부분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 대대로 명문거족의 후손으로 건강하고 학식도 높음에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철저한 신분사회이며 가부장적인 왕정사회에서 정신과 육신이 건강한 사대부 남성이 가족, 친척들의 염원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본에서는 그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보충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명문거족의 후손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진로를 거부하고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의 선조 대에 벼슬길에 나갔다가 사회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어서 후대에는 벼슬길에 나서지 말도록 가훈이 남겨져 있었거나 스스로 선대의 일을 교훈 삼아 세상을 등지고 살 결심을 했을 경우, 또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알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았거나, 벼슬을 받아 어떤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잘 해 낼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했을 경우이다. 전자가 정치, 사회적인 이유라면 후자는 성격적으로 자신을 계발하려는 의지의 박약함과 성취욕구의 미흡, 타고난 게으름 등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심현이 벼슬길에 뜻이 없었던 이유가 만약 첫 번째 이유 때문이라면 이 부분은 작품에서 당연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가장의 위치에 있는 남자가 유택한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벼슬길을 외면하는 것은, 심청 이야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가난이라는 주제를 생성시킨 것이기에 이야기를 만드는 데 참여한 다수의 이름 없는 창작자들이 그의 가난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주는 사실입직하고 그럴 듯한 화소를 무시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관본」에서 심현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남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며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심현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음으로써 양반가의 자제라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과거시험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가 비록 벼슬에 나가지 않았지만 ‘당대의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는 표현을 보면 그가 학문에 뜻이 없어 과거를 기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가 학문을 즐기는 선비의 삶에는 만족하지만 어떤 일에 책임을 지거나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일에 그 학문을 연계하는 것은 기피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현이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무의식적 차원에서 회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즐기지만, 즐거울 수만은 없는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회피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심봉사는 비록 본인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양반의 후예로서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약하고 무력하며 책임회피적인 인물인 것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성장에 따른 발달이 각 단계에 알맞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나이가 들어 몸은 성인으로 발달하였지만, 심리적 차원에서 그는 여전히 타인의 보살핌을 간구하며 스스로 독립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심봉사의 안맹에 대한 진단

「경관본」에서는, 「완관본」에서 심학규가 맹인이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심현이 맹인이 되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청이 점점 자라 세 살이 되니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데다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과 친척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오는 것은 옛부터 늘상 있었던 일로서, 정씨가 문득 병을 얻어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공이 크게 슬퍼하여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딸을 품에 안고 밤낮으로 슬퍼하니 청이도

어머니를 찾으며 애달프게 울어 그 부녀의 딱한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공의 살림살이가 점점 기울고, 몸이 병마져 들어 병석을 떠나지 못하는 중에, 눈병을 얻어 몇 달이 되지 못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하게 되었다[6].

그는 아내가 죽고 난 후 병석에 있던 중에 눈병을 얻어 눈이 멀게 되었다. 그는 아내가 살아 있을 때 맹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완판본」에서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 결혼 십 년 만에 청을 낳고 그 후 삼 년 만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용모가 아름답고 타고난 자질이 넉넉한 아내와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한 딸 청과 함께, 심현의 삶은 행복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뜻을 두지 않아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그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없음을 뜻한다. 또한 그가 명문거족의 자손이기에 비록 전답 등의 재산이 있었다 하여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도 점점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경판본」에서, 그의 아내 정씨가 죽을 때까지는 살림살이가 줄어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내가 죽고 나서 그가 밤낮으로 슬퍼하며 살림살이가 점점 기울었다는 작품 속의 표현으로 미루어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완판본」의 괘씨 부인처럼 살림을 매우 아무지게 잘 해 냈을 것이며, ‘이름난 선비’로 ‘벼슬에도 뜻을 두지 않’는 등 삶의 세속적인 부분에는 무관심한 가장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역할을 했던 아내 정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에게 다른 여느 성인남자에게 일어난 아내의 죽음과는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학문을 갈고 닦는 일 이외의 나머지 일에는 등한한 그를 위해 집안의 모든 일을 꾸려 나갔던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은, 세 살 된 아이의 양육 문제와 함께, 그가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중압감을 그에게 주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아내에게 의존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딸을 홀로 양육하며 혼자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곧 그 동안 그가 아내에게 의존하여 편안하게 살아왔던 유아적 시기의 종식을 요구하는 혁명적 사건인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던 과거와 같은 삶이 용납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작품에서 표현된 그대로, “딸을 품에 안고 밤낮으로 슬퍼”[6]할 수밖에 없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살림살이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불행 후에 그에게 찾아온 ‘가난’으로 그는 당장 먹을거리를 걱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에게 매우 커다란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어린 딸을 안고 슬퍼하기만 하는 그의 모습은 이웃들에게 “차마 보지 못할 지경”[6]의 가련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실제로 심현은 아내의 죽음에 이어 닥쳐온 가난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동력을 지닐 수 없었다. 심리적 발달 장애로 인한 미성숙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상황에 책임지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의지에 지배당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때, 그는 “몸에 병마져 들어 병석을 떠나지 못하는”[6] 상황이 된다.

병에 걸리는 것은 그에게 가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제가 된다. 그가 건강하면서 가난하다면 모두 그를 비난하겠지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은 비난받는 대신 동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병에 걸린 것은 그에게 가난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심리적 장치의 발달일 수 있다. 그는 병석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눈병을 얻어 몇 달이 되지 못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하게 되었다”[6]. 병을 얻은 것에 더하여 얻게 된 안맹 상태는 가난 속에서 어린 딸을 돌보는 그가 어린 딸과 함께 굶주리며, 그 딸이 자라면서 동네에서 밥을 구걸해 오는 것을 단지 안타까운 일로 치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곧 그가 맹인으로서 집안 살림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어린 딸을 내세워 동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웃들은 측은한 마음만 가질 뿐이지, 가장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안맹은, 그를 둘러싼 현실 상황이 더 열악해진 가운데에도 그가 무위도식과 책임회피적 태도를 계속 고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줌으로써 그가 안맹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많은 비난을 정당하게 면제받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곧 그의 안맹은 안맹으로 인한 불편대신에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이득을 그에게 제공해준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인류의 역사 이래 정신신체의학의 근간이 되었는데 기도나 종교적 의식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중세기에는 신비주의가 종교를 지배하여 죄를 짓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믿음도 있었다. 그러다가 분노, 두려움,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이 질병 발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생겨났다[7]. 정신분석이론, 정신생리학, 정신생물학 등이 이 분야를 이루는 핵심이 되었는데, 특히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은 이 분야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가 밝혀낸 무의식의 개념은 심인성으로 인한 많은 질병의 원인을 밝혀서 질병을 치유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심봉사의 안맹은 그의 마음상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프로이트는 자신의 논문 ‘시각의 심인성 장애에 관한 정신분석적 견해’에서 심인성 시각 장애의 한 유형인 히스테리성 실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몽유병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면을 통한 한 쪽 눈이 안 보이게 될 것이라고 유도하면 실제로 그들이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는 이것이 마치 자발적으로 시각 장애를 일으킨 히스테리 환자와 같다고 하였다. 곧, “히스테리 환자에게는 눈이 먼다는 관념이 최면 치료사의 암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도—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자기암시에 의해서—생겨나며, 두 경우 모두에서 그 관념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암시된 환각이나 마비 등에서도 똑같이 현실로 바”[8]핀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심리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되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봉사의 안맹이 실제로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는 것과 관계있는 눈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경우를 ‘심인성에서 오는 히스테리성 안맹’으로 불렀는데, 적절한 실험들을 통하여 히스테리에 의한 맹인들이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맹인이며, 무의식에서는 맹인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였다[8].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무의식 상태에서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 프랑스 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라,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의 경우 “정신의 영역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선천적인 분리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로 어떤 무의식적인 과정들은 의식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9]고 한다. 곧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이 볼 수 없다는 자기 암시의 결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에서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과정이 분리된 결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그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심리적인 상태의 표현이지, 그 원인이 아닌 것”이다[9]. 보는 행위를 통하여 외부세계의 변화를 그대로 감지하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과도하게 느끼는 고통은 자아 본능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보는 것과 관련된 관념을 억압하여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결과 자아는 시각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시각기관은 억압된 본능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의식은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주체에게 외계와 관련된 향외적 성격을 갖는다. 「완관본」에서 심봉사가 안맹한 시점을 고려하면, 그는 가세가 기우는 집안에서 스무 살이 되어가는 아들로써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경관본」에서도 그는 아내의 죽음 후 현실적으로 집안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에 있었다. 곧 그가 처한 현실이 그에게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집안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현실에 눈을 감음으로써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그가 안맹이 되는 것은 그에게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는 안맹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맹은 상징학에 따르면 “사물의 현실을 무시하고, 명확성을 부정함으로써 무책임한 것이고 광기의 발작이며 미친 것”[10]을 의미하기도 한다. 히스테리 신경증의 본질은 심리적 욕구나 갈등을 포함하는 억압이 신체 기능의 상실 또는 변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곧 정신적인 힘이 신체적인 배출로 변형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이를 전환신경증(conversion neurosis)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2013년에 출간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의 5번째 개정판(DSM-V)에 따르면 기능신경학적인 증상 장애인 전환 장애로 분류된다[12]. 정신분석에서는 전환 장애를 일으키는 기초적인 요인으로 리비도의 오이디푸스적인 갈등을 들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여기에 공격성과 의존적인 욕구도 주된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실명과 같이 감각기능의 상실로 일상생활에서 무능해진 환자들이 그들의 장애 때문에 이차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11]는 것이 밝혀졌다. 그 이득은 그들이 질병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거나 또한 주위사람들로부터 위함이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그들의 의존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11]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심봉사의 안맹이 전환 장애인 심인성 히스테리성 안맹이며, 극도로 의존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그의 성격적인 특성이, 집안의 몰락과 가난, 그리고 아내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현실에 등을 돌림으로써 현실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내면적 욕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안맹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무능과 무위도식에 대해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이차적 이득을 얻었던 것이다.

#### 4. 탈맹과 신경증의 해소

그의 안맹이 심인성에서 기인하는 히스테리성 전환 장애임을, 그가 기적처럼 눈을 뜨는 시점과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눈을 뜨는 장면은 「완판본」에서 황후가 된 심청이 맹인잔치에 온 아버지를 만나 자신이 청임을 밝히자마자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으로 묘사된다. 아버지의 “얼굴은 몰라 볼 만큼 변해 있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13]하여 삼 년간 용궁에서 지낸 청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이다. 그녀가 심봉사를 따로 불러 과거를 물어 보니, 그는 자신이 ‘딸을 팔아먹은 놈’이라며 자신의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 때서야 청은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황후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 분명히 아버지인 줄을 알 수 있었다. [...]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께서 버선발로 뛰어들어 내려와서 아버지를 안고,

« 아버지, 제가 정녕 인당수에 빠져 죽었던 심청이에요. »

심봉사가 깜작 놀라,

« 이게 웬 말이나 ? »

하더니 어찌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서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다[14].

「경판본」에서 심청의 아버지는 양반으로서의 체통을 지니고 청이 죽은 후에 오로지 청에 대한 생각에만 빠져 자신을 자책하고 살아온 아버지였다. 그러므로 그가 맹인잔치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이목구비는 그대로였으나 피부에 살이 빠져 귀신같았다”[15]고 묘사된다. 황후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님!”이라고 한마디 부르고는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 왕에게 사실을 고하고, 왕은 부녀상봉을 명한다.

왕비가 뜰에 내려가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기를,

« 아버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뱃사람에게 팔려 인당수에 빠져 죽은 청입니다. 임금님의 은혜가 망극하여 몸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님을 다시 뵈게 되니 이제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

하니, 심현이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 네가 진정 내 딸 청이나? 죽은 딸이 어찌하여 이렇듯 귀히 되었던 말이나? 내 눈이 없어 너를 못 보는 것이 한이로다. »

하며 한 번 찡그리고 눈을 번쩍 뜨니 두 눈이 뜨였다[15].

죽었다고 생각한 딸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황후까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심봉사가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 한 번 찡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 두 눈이 뜨였다.

그가 이렇게 눈을 뜨는 시점은 죽었다고 생각한 자신의 효녀 딸 청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황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 순간이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만 와도 그는 다시 딸에게 의지해 그래도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더해 청이 황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그가 황후의 아버지이자 왕의 장인으로서 아내와 딸에 기대어 무위도식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무위도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곧 그에게 고달팠던 인생 문제가 모두 사라져버린 순간, 그는 안맹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시력을 되찾은 시점은 그가 시력을 잃어버린 시점과 연결되며, 그의 안맹의 특성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심청의 이야기로만 인식되어

왔던 한국의 대표적인 효행 이야기인 『심청전』을 심청의 이야기가 아니라 맹인인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안맹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심봉사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그의 안맹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하여 작품의 「완판본」과 「경판본」을 텍스트 자료로 사용하며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안맹은 심인성 히스테리 신경증으로 DSM-V의 분류에 따라 전환 장애로 진단되었다. 이 장애 환자는 철저한 정밀검사로도 설명되지 않는 신경학적 증상을 갖고 있는 바, 경련, 마비, 보행 장애, 언어나 연하장애가 흔하게 나타난다. 증상은 스트레스가 큰 사건이나 심리적 갈등 뒤에 나타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해 이차적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설명된다[17].

심봉사의 경우 점점 기울어지는 가세와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 등은 그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현실을 마주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의 강렬한 욕망은 그의 시각신경을 마비시켜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안맹으로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아내나 딸의 보살핌에 의지한 채 무위도식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든 비난을 면제받는 이차적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안맹과 함께 이렇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난 심봉사는 가족 내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 구성원들과 가족 내 역할의 전도를 일으킨다. 곧 그는 아내와 딸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들의 피부양자일 뿐이었다. 전환 장애자들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증상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 자체에 대해서 거의 걱정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만족스러운 무관심(la belle indifférence)”[16]이라고 부르는데, 심봉사 역시 청을 기다리다가 홀로 집을 나서서 개천에 빠질 때까지는 그가 자신의 눈먼 상황을 그다지 염려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존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성격 특성의 심봉사에게 안맹의 고통은 그로 인해 얻는 무위도식의 삶이 주는 만족감보다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심한 만족감’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장, 아버지, 남편의 역할을 도외시한 자신의 무책임한 삶에 대해 어떤 비난도 받지 않은 채 무위도식하는 삶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6년도 전주대학교의 교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REFERENCES

- [1] S. G. Jang, Study of Sim Cheong Jeon's narrative structure, Université de Kyeongbuk, Ph.D Thesis, p. 15, 1993.
- [2] 1. I. S. Yoon, "Sim Cheong's journey to the motherland",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pp. 29-54, 2010.  
2. I. S. Yoon, "Melancholia of Sim Cheong", Journal of Lacan & Contemporary Psychoanalysis, Vol. 12, No. 1, pp. 89-107, 2010.
- [3] "Wanju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p.74-219, 1995.
- [4] "Seoul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p.18-71, 1995.
- [5] "Wanju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75, 1995.
- [6] "Seoul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19, 1995.
- [7] G. B. Ko, Stress and psychosomatic medicine, Ilzgak, p. 126, 2002.
- [8] S. Freud, "Le trouble de vision psychogene dans la conception psychanalytique", translated by B. S. Whang, Hemmung, Symptom und Angst, YeollinchakDeul, p. 86. 1998.
- [9] S. Freud, "Le trouble de vision psychogene dans la conception psychanalytique", translated. by B. S. Whang, Hemmung, Symptom und Angst,

Yeollinchakdeul, p. 87. 1998.

[10] J. Chevalier. A.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 : mythes, rêves, coutumes, gestes, formes, figures, couleurs, nombres, Paris, Robert Laffont, p. 88, 1982.

[11] B. Y. Lee & G. Y. Seo, Modern Psychiatry, Ilzogak, p. 113, 1982.

[12] A. Frances,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DSM-5, tran. by W. M. Park etc., in korean, Sigmaphress, p. 264, 2014.

[13] “Wanju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 203, 1995.

[14] “Wanju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p. 203-205, 1995.

[15] “Seoul version”, Sim Cheong Jeon, annotated by H. Y. Jeong, Coll. Complete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 67, 1995.

[16] A. Frances,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DSM-5, tran. by W. M. Park etc., in korean, Sigmaphress, pp. 264-268, 2014.

[17] B. Y. Lee & G. Y. Seo, Modern Psychiatry, Ilzogak, p. 115, 1982.

저자소개

윤 인 선(In-Sun Yoon)

[정회원]



- 1980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수어과(프랑스문학 석사)
- 1989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수어과(프랑스문학 박사)
- 2001년 8월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문학 석사)
- 2008년 2월 : 프랑스 파리7대학 드니-디드로 정신분석학과 정신병리학과(정신분석학 박사)
- 1982년 3월 ~ 2009년 4월 : 전주대학교 유럽언어문화 전공 교수
- 2009년 4월 ~ 현재 :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관심분야> : 정신분석학, 문학, 심리학, 영화치료학